

## 주암호가 바닥났다

### 저수율 26%로 사상 최악 6월까지 가뭃 '식수 비상'

최악의 장기 가뭃으로 광주시의 상수원이 바닥을 드러내고 전남 지역 일부 산간·도서지역에서 제한·운반급수가 확대되는 등 식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2·3면>

이와 함께 전남 지역에서는 저수지까지 바닥을 드러내면서 불철 영농에도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에 따른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가뭃의 장기화로 지난 4일 현재 광주시의 주요 취수원인 동복수원지와 주암호의 저수율이 각각 39%, 26.4%로 최근 5년내 가장 낮은 수위에 머물고 있다.

동복수원지와 주암호의 연 평균 저수율이 각각 70%, 50%대인 점을 감안하면, 담수량이 절반 가까이 격감한 것이다. 시는 동복수원지에서 하루 22만, 주암호에서 23만 등 모두 45만을 취수하고 있다.

광주시와 주암호를 관리하는 한국수자원 공사 전남지역본부는 5월까지 강수량이 600mm에 못미칠 경우 제한급수라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봄 가뭃대비 수돗물 공급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가뭃은 취수원의 수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동복수원지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규조류가 발생한 데다 이달부터는 남조류·녹조류의 이상 번식도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도 지난해 강우량이 989mm로 평년 1천370mm의 72%로 떨어지는 바람에 식수난이 심각해 급수시간

이 제한되고 차량을 이용한 운반급수가 확산하고 있다. 8일 현재 전남 광역상수도(주암·장흥) 저수율은 35.4%로 평년대비 65%에 비해 절반 수준이고, 지방상수도 저수율 또한 44.9%로 평년대비 31%포인트 낮다.

이 때문에 전남 지역 18개 시·군 258개 마을 1만4천49가구가 물을 옮겨오는 운반급수 또는 시간제·격일제 등으로 제한급수를 받고 있다. 제한·운반급수를 통해 마실 물을 공급받는 전남 지역민은 모두 3만1천306명에 달하고 있다. 작년 12월 말 2만5천905명에 비해 17%가 증가한 셈이다.

도내 저수지 저수율이 전년 84%의 절반 수준인 47%에 그치고 있다. 평년 저수율 74%보다도 낮아 대부분 저수지에서 농업용수 부족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나주호·장성호 등 4대호 저수율 또한 45%로, 전년 79%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전남도가 논물확보 취약지역을 조사한 결과 도내 비재배면적의 1.6%인 3천46ha가 논물 확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관계자는 "매년 통상적으로 겨울과 봄에는 가뭃이 있었지만, 이번 가뭃은 작년 가을부터 시작돼 겨울까지 이어지면서 올해 겨울 극심한 물부족 사태를 낳고 있다"면서 "관정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2월 말까지 2차 가뭃사업비를 조속히 집행하고 사업비 추가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거북등' 주암호  
광주시의 주요 상수원인 주암호의 저수율이 26.4%(4일 현재)로 격감하면서 바닥이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있다.  
/사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균발위 "광주·전남 요구 일부 수용"

### 5+2 수정 대신 車부품클러스터·광주지하철 연장 등 검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가 광역경제권 재설정을 제외하고 핵심 산업 및 선도 프로젝트 조정과 관련한 광주시와 전남도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거나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등 호남권 광역자치단체가 균발위의 이 같은 입장을 수용, 그동안의 광역경제권을 둘러싼 논란을 매듭지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균발위는 최근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현행 '5+2 광역경제권' 구상에서 전북을 별도 권역으로 설정, '5+3 광역경제권'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핵심 선도 산업과 프로젝트의 조정 요구에 대해 일부 수용 및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균발위는 우선 광주시가 핵심 선도 산업 조정과 관련, 광소재 산업 대신 친환경 첨단부품소재 산업을 지정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R&D 특구 지정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균발위는 선도 프로젝트와 관련,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광주 지하철 노선을 나주 및 화순까지 연장하는 '광주·전남 광역생활철도 건설 사업'의 추가 지정 요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역생활철도는 광주시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및 기본 계획을 수립

립해 국토해양부에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균발위는 전남도가 요구한 핵심 선도 프로젝트에 J-프로젝트 및 F1 대회 지원 등을 추가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초광역개발권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광주시와 전남도 등 호남권 광역자치단체가 이같은 균발위의 방침을 수용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장 박광대 광주시장과 최상철 균발위원장이 지난 6일 접촉,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만간 호남권 광역단체장 간사 격인 박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지방 미분양아파트 규제 완화 '급물살'

### 2기 경제팀, 부동산 활성화 대책 적극 추진

2기 경제팀 출범에 맞춰 지방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및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이 급물살을 탄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내수 부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작업에 착수하는 동시에 일자리 유지와 창출을 위한 세계지원,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폐지 방안 등 현안에 대한 조율

도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취임과 동시에 경제살리기를 위한 '100일 액션플랜'에 들어가 재정 지출 효과 극대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규제완화 등을 위한 세부 대책을 손질 중이다.

8일 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윤중현 내정자가 이르면 오는 10일 취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현안에 대한 부처 및 당장간 최종 조율을 조속히 끝내고 법 개정 등 후속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분기를 바닥으로 한국 경제가 반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일보 사장에 유제철씨

주식회사 광주일보는 9일 대표이사 사장에 유제철(62) 전 광주일보 이사를 선임했다.

광주일보 제 8대 사장에 취임하는 유 사장은 광주일보 발행인·인쇄인·편집인을 겸한다.

김진영 전 사장은 광주일보 고문에 위촉됐다.

유 신임사장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조선대 법정대 경제학과, 광주대 언론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지난 1972년 구 전남매일 수습기자 공채로 입사한 후 1980년 언론통폐합으



<유제철 사장>

로 강간된 광주일보에서 사회부장·경제부장·논설위원·편집장·영업본부장(이사)을 역임했다. 유 사장은 지난 2005년부터 대주그룹 임원으로 일해왔다.

\*이취임식은 9일 오전 10시30분 본사 16층에서 사내행사로 열리며 축하 화환·화분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제44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한울정 "피부의 최적 균형을 이루는 쉼터"

아모레퍼시픽